

완주군, 2국 신설 추진

인구상한선 9만 5000명 법적요건 갖추에 따라

완주군이 인구 변화에 따른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군은 2국 설치 법적요건인 인구상한선이 지난해말 9만5000명을 초과함에 따라 올해 본격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다. 특히 군은 조직개편을 오는 7월경 현재 공석중인 서기관(4급) 2자리와 '과' 신설 등에 따른 사무관(5급) 4자리, 하부조직 승진, 전보 등 인사단행과 함께 최종 안료할 계획이다. 24일 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및 제13조 법률조건에

따라 2국을 설치하고 대대적 행정개편을 추진한다. 이에 기존 2실12과1단2직속3사업소 13개읍면 조직에서 2국1실16과2직속3사업소13개 읍면으로 조직이 개편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2국2과가 신설되면서 업무효율성 극대화가 전망된다. 2국은 '행정복지국'과 '경제안전국'으로 나뉘며, 공동체지원과·관광체육과 2개과가 신설된다. 2국 중 행정복지국에는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종합민

원과 ▲재정관리과 ▲환경위생과 8개 과로 분류된다. 경제안전국에는 ▲일자리경제과 ▲공동체지원과 ▲농업농촌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공영개발과 8개 과가 소속된다. 기획감사실은 기획 등 군정전반의 컨트롤타워 및 감사독립을 위해 부군수 밑에 두기로 했다. 또한 기존 실과 중 변경된 명칭은 ▲주민생활과→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교육아동복지과 ▲종합민원실→종합민원과 ▲농업농촌정책과→농업농촌과 ▲전략사업추진단→공영개발과 5개과가 변경된다. /원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양봉산업 집중 육성

진안군은 24일 새로운 고부가가치 작목인 양봉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기자재·종봉·품질 검사비·저온저장고 등 2억5,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올해는 4억5,000여만원을 투자하여 벌통 및 소초광 등을 포함한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을 지원해 생산성 향상과 채화량 증대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봉은 고품질 벌꿀, 로열젤리, 프로폴리스, 봉독 등 꿀벌의 공익적 가치 증대는 물론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 꿀 생산 농가 소득 증대

식량 공급 및 생태계 보존·유지에 큰 역할 해 친환경 축산물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 작목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양봉산업 확대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양봉규모 및 밀원수 식재 등 고품질 꿀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양봉협회와 지속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진안고원 양봉산업 고부가가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천천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애향장 송점덕·효열장 박영순·문화체육장 윤여권·산업공익장 김재원

장수군 천천면(면장 김진홍)은 지난 23일 천천면민의 장 심의위원회를 갖고 제16회 면민의장에 송점덕(애향장), 박영순(효열장), 윤여권(문화체육장), 김재원(산업공익장)씨를 각각 선정했다. 애향장 송점덕(45·대전광역시)씨는 천천면 평지마을 출신으로 2013년부터 천천중학교 후배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기탁해 향토인재 양성에 앞장서 왔으며 향토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평지마을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고향을 사랑하고 후학을 키우는 마음을 몸소 실천해왔다. 효열장 박영순(65·장항마을)씨는 결혼 후 40여년간 사부모님을 극진히 봉양해왔으며 특히 2011년 심근경색이 발병 후 거동을 못해 누워 지내는 시어머님(現 88세)을 병원에 모시라

는 주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식사, 목욕, 대소변 등 모든 병수발을 집에서 하며 가정의 근간이 되는 효를 몸소 실천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문화체육장 윤여권(57·춘동마을)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천천면 체육회장을 역임하면서 테니스, 족구 등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 하는 등 생활체육 발전에 노력해왔으며 특히 생활체육의 거점인 천천면 체육공원 조성 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이 크다. 산업공익장 김재원(62·돈촌마을)씨는 1984부터 15여년간 돈촌마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역임하며 강한 사명감과 성실함으로 돈촌마을 영농회를 구성해 마을단위 사업과 영농활동

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왔으며 2007년에는 수박작목반장으로 농가 고소득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군수표창을 받은 데 이어 2016년에는 농협중앙회 선정 '이달의 새농민'에 선정되어 많은 농가의 귀감이 되고 있다. 현재는 토마토 재배농가로서 주변 농가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선도 보급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한편 천천면은 6월 5일 제16회 천천면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천천면민의 장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특별리포트

장수군, 주민·공무원 대상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

장수군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리산권 관광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한국농업연구소원에서 상반기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아카데미는 지리산권 문화연구 및 해설과정, 지리산권 관광컨텐츠 디자인 과정, 지리산권 관광마케팅 과정 등 3개 과정으로 과정별 25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각각 진행된다. 특히 과정별 우수강사 초빙과 전문멘토링단 상시운영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교육생들의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이 6월 4일과 5일 운문산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실시한다.

신기한 반딧불이 세계로 무주군, 내달 4-5일 운문산 신비탐사 실시

무주군이 6월 4일과 5일 운문산 반딧불이 신비탐사(20:30~)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운문산반딧불이 신비탐사는 서식지에서 직접 반딧불이의 반짝임과 생태환경관찰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구분없이 5천 원이던 체험이 가능하다. 예약은 6월 3일까지 반딧불이축제 홈페이지(www.firefly.or.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최중은 반딧불이 담당은 "신비탐사 추진과 반딧불이축제 등을 앞두고 반딧불이 다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출현 여부와 개체수를 조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반딧불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약사용 자제 등 친환경농업 실천을 독려하고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등 서식지 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 관에서 반딧불이가 출현한다고 알려진 곳은 모두 160개 지역으로 무주군은 각 종별 반딧불이 출현 시기에 맞춰 출현여부와 개체수를 조사하는 한편, 다량 출몰지역을 염색해 반딧불이 신비탐사 지역으로 활용하고, 반딧불이 서식환경 연구를 지속해 서식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무주군이 해마다 5월 말 ~ 6월 초(운문산반딧불이, 애반딧불이), 8월 말 ~ 9월 초(늦반딧불이 / 반딧불이축제 기간 중 실시) 반딧불이 출현 시기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반딧불이 서식지에서 직접 만나보는 연초록 반딧불이의 신비로움이 매력적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덕유산 산림정화 캠페인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중세)는 24일 무주 덕유산 자연휴양림 및 구전동 계곡일원에서 "산림정화 캠페인 및 산림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산행인구에 비해한 성숙한 산행문화 정착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 홍보 등 산림에 대한 올바른 국민의식정착과 더불어 앞으로는 관공서 위주가 아닌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캠페인과 더불어 무주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이 직접 산림 내 쓰레기 및 오물 등을 치우는 산림정화활동을 병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어울림커뮤니티 1주년 27일 사진전·문화공연 진행

옛 군수 관사를 주민들의 참여 및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문을 연 '어울림 커뮤니티'가 개관 첫 돌을 맞아 기획사진전 및 문화공연을 진행한다. 완주군은 '어울림 커뮤니티' 개관 1주년을 기념해 27일 오후 4시부터 기획사진전 및 문화공연을 통해 군민이 주인 되는 소통한마당 문화행사가 개최된다. 어울림 커뮤니티는 군정사를 방문하는 주민의 휴식공간은 물론 주민-전문가-공무원간 소통과 공감의 공간 무리 다양한 미술작품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획사진전은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윤승의 다양한 사진작품을 오후 4시부터 '어울림카페'에서 차 한잔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오후 6시부터는 '어울림 잔디광장'에서 비비그림인 리스프의원 의식 전행사를 시작으로 시인 김용택과 김일중, 전영록이 초대가수로 출연하여 문화행연을 펼친다. /원주=이종복 기자

진안군의회, 환경농업대학 특강

진안군의회 이한기 의장은 24일, 농업기술센터 3층 강당에서 진안환경농업대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진안환경농업대학 학생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진안군의회의 기구 및 현황, 연혁, 지위와 권한, 회기소집과 각종 처리절차 등을 한 시간 가량 소개했다. 특히 진안군의회에 상시 민원상담실을 설치하여 의원이 부재중일지라도 누가 언제라도 민원을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과의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도 설명했다. 이한기 의장은 "모든 수강생이 성실하게 과정을 이수하여 본인은 물론 진안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사랑장학재단, 중2 고구려 역사탐방 추진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항로)은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구려역사탐방'을 추진한다. 1차로 진안중학교 2학년 학생 48명이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4박5일의 일정으로 '고구려역사탐방'을 마치고 돌아왔다. 학생들은 백두산을 시작으로 장군총, 광개토태왕비, 압록강 단풍 등 우리민족 역사의 흔적을 둘러봤다. 탐방을 다녀온 2학년 학생들은 "이번에 역사탐방을 하면서 교과서에서만 보던 고구려 역사유적지를 직접 가서 보고 체험할 수 있어 유익한 경험이었고, 처음으로 여권도 만들었다."며 기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